■ 민족문화연구 제82호(2019.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65-391.
http://doi.org/10.17948/kcs.2019..82.365

손창섭 소설 속 의협과 폭력

김주리(金珠理)*

목 차

1. 서론
2. 저항의 폭력과 반체제적 의협
3. 부랑화한 의협과 무의미한 폭력
4.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개인적 정의감에 입각해 사회와 불화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인간형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손창섭 장편소설의 의미를 재고하고자 한다. 의협은 사회적 규범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만의 정의를 고수하는 반사회적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의협의 서사는 우리나라 고전소설에서 유교적인 충의 윤리와 결합한 소설들로 나타나거나 일제강점기 소설에서 역사를 배경으로 지배층의 윤리와 질서를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정의를 무력으로 추구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인물에 대한 서사로 나타난다. 「낙서족」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는 호명이 가진 구조적, 상징적 폭력에 분노하며 박치기와 폭탄 제조, 협박과 강간 등 물리적 폭력으로 자신만의 의협을 발휘하는 주인공을 내세운다. 「저마다 가슴 속에」는 부패한 권력과 속물적 처세술에 저항해 자신만의 교육관을 추구하며 소동을 일으키는 교사 천봉우를 주인공으로

* 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내세우지만 이면에서 이러한 의협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다. 「인간교실」과 「아들들」, 「길」 등 손창섭의 60년대 장편소설 속 의협의 세계는 개인적 정의와 물리적 폭력 사이에 일정한 균열을 나타내고, 개인적 정의에 입각한 의협이 개발독재 사회의 현실에서 무의미한 폭력으로 귀결하거나 자본주의 가부장제 질서로 회귀할 뿐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협객의 활약과 무뢰한의 소동은 이후 개발독재 사회체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현실도피적 욕망의 대상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주제어: 손창섭 장편소설, 의협,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상징적 폭력, 개발독재 사회체제.

1. 서론

손창섭의 대표작 「잉여인간」(1958)은 '만기 치과 의원'에 "원장인 서만기 씨와 간호원 홍인숙 양 외에도 거의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람 둘"을 그리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비분강개파 채익준 씨요, 다른 한 사람은 실의의 인간 천봉우씨다."[1] 전쟁 후유증을 앓는 무기력한 천봉우와 건실하고 교양 있는 가부장 서만기와 달리 채익준은 매사에 비분강개하며 좌충우돌하는 행동형 인간이다. 그는 신문에 실린 50년대 전후 재건 사회의 온갖 부정부패와 사기, 협잡에 "분을 누르지 못해 진찰실과 대합실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혼자 투덜거"[2]리고 법으로 그런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핏대를 세우고"[3] 대들기 일쑤이다.

> "뭐라구? 법에 의해서 적당히 처벌될 게라? 아니, 그래 이따위 악질 도배들을 그 뜨듯미지근한 의법 처단으루 만족할 수 있단 말요! 미스 홍은 그 정도루 만족할 수 있느냔 말요. 무슨 소리요. 어림없소. 이런 놈들은 그저 대번에 모가질 비틀어버리구 말아야 돼. 아니 즉각 총살이다. 그저 당장에 빵빵 하구 쏴 죽여버리구 말아야 돼. 그러구두 모가지를 베어서 옛날처럼 네거리에 효수를 해야 돼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단 말요!"[4]

---

1) 손창섭, 「잉여인간」, 『손창섭 단편 전집』 2, 가람기획, 2005, 88면.
2) 같은 책, 89면.
3) 같은 책, 90면.
4) 같은 책, 90면.

채익준의 의분은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합리에 대해 단순히 분노하는 것을 넘어 법에 따른 처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대번에 범죄자의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총살, 효수까지 해야 한다는 과도한 폭력의 주장으로 나아간다. 사회 규범이나 법적 기준이 아닌 개인적 정의를 기준으로 그는 부정부패 사범들을 "이완용이나 마찬가지 역적"이자 "살인강도 이상의 악질범"으로 간주하며 "그놈들의 뼈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겠"[5]다는 음험한 폭력과 피의 보복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50년대 후반 이래 손창섭의 소설에는 채익준과 같이 개인적 정의를 기준으로 비분강개하며 폭력을 행사하면서 당대 사회 질서와 곳곳에서 부딪히는 인물들이 형상화된다.[6]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 주체가 갖는 분노와 그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회 체제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감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7]

한 사회가 체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폭력에 기반한 정의 구현이 금지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다. 법에 의한 처벌과 규정을 준수하는 인간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분이나 의협심 같은 감정은 그 사회가 어떤 행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어떤 행동을 억압하는가에 따라 그 표출 방식이나 가치가 달라진다. "國家가 犯罪者의게 대하야 반다시 刑罰을 科하나 然이나 此ᄂᆞᆫ 결코 復讐的 所爲로 행ᄒᆞᆷ이 아니오 多數한 人衆을 通御ᄒᆞ야 一定한 法律下에 處息ᄒᆞ야 安寧福利를 贈進코저" 한다는 근대 사회에서는 "刑罰法領에 名文이 無ᄒᆞᆫ 行爲는 總히 罪되

5) 같은 책, 91면.

6) 기존연구에서는 「잉여인간」 전후로 손창섭 소설이 결혼을 회피하고 자기모멸적인 남성상을 나타내던 경향에서 긍정적 지식인 가부장의 성격을 나타내기 시작한다고 본다. 조남현, 「손창섭 소설의 의미매김」, 『손창섭—모멸과 연민의 이중주』, 새미, 2003, 156-159면; 이현석, 「손창섭 소설에서 나타나는 부정성의 의미 변화에 관하여—〈잉여인간〉과 〈낙서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박찬효,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의 존재론적 변환과 결혼의 회피/가정의 수호 양상」, 『상허학보』 제42집, 상허학회, 2014, 385-387면. 본고에서는 「잉여인간」 전후로 손창섭 소설이 사회와 융화하는 긍정적 지식인 가부장보다는 자기만의 정의로 좌충우돌하는 남성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의미를 문학사 속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7) 분노는 즉각적이고 일차적인 감정이지만, 분노의 서사는 일반적으로 불쾌한 사건 → 분노 → 분노 통제 시도 → 통제 상실 → 보복이란 과정으로 펼쳐진다. 졸탄 코벡세스, 『은유와 감정』, 김동환·최영호 역, 동문선, 2009, 102-105면 참고. 의분과 울분은 분노가 유발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 피해의식과 결부된 울분과 달리 의분은 개인의 도덕과 결부된 감정이다.

지 아니 ᄒᆞ"[8]는 까닭에 법률 너머 무수한 악행에 대한 개인적 의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의협의 폭력은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개인적 의협과 폭력이 체제에 대한 저항과 이반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서사화하는 손창섭의 소설들에 대해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개인적 정의감에 입각해 사회와 불화하고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폭력을 자행하는 인간형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50년대 후반 이후 손창섭 소설의 의미를 재고하고자 한다.

2. 저항의 폭력과 반체제적 의협

'의협'(義俠)이란 '의'와 '협'의 합성어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정의를 위하여 강자에 맞서서 약자를 도와주는 의로움이 있음'을 뜻한다. '협(俠)'은 '무로써 금령을 범하는 것(俠以武犯禁)', 즉 사회적 규범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는 최초의 기록처럼[9] 개인적 정의에 따라 무력으로 사회적 금령을 범한다는 반사회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유교적 또는 근대적) 윤리와 결합된 사회적 개념으로서 '의(義)'와 때때로 상충된다.[10] 다시 말해 '협'이 지향하는 본래적 가치는 사회 규범이나 질서에 대한 존중과 무관하게 개인적 준칙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그 기저에는 보은과 보복, 불의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자유, 호방, 야성미 등이 결합된 원시적 쾌락주의와 물리적 폭력, 힘의 미학이 개진한다.[11]

---

8) 法律讀書人, 「罪刑에 關ᄒᆞᆫ 法定主義」, 『대동학회월보』 제3호, 대동학회, 1908.4, 24-28면.

9) 이에 대해서는 정현선, 「친사회적 행위로서의 俠과 義」, 『중국인문과학』 제54집, 중국인문학회, 2013, 255면 참고.

10) 『사기』와 『한서』 등 중국 당 이전의 기록에서 '협'은 '의'와 관련이 없거나 상충하는 개념이었으나 명청대 소설에 와서는 의와 구분되지 않거나 융화된 친사회적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최재용, 「의/협의 변천사—최근 중국 인터넷 '선협소설'에서의 의/협 개념」, 『중국소설논총』 제44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4, 312-314면 참고.

11) 중국에서 협에 대한 이야기는 『사기』의 '자객열전'과 '유협열전' 등 실존인물들의 협으로서의 삶에 대한 기록에서 출발해 당대 이후 무협소설의 서사로 이어진다. 유승현, 「돈황 의협서사의 민중적 의협관」, 『중국소설논총』 제31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0, 49-50면 참고. 박영종은 「수호전」에 대한 분석에서 협객의 정신이 철저한 보은과 보복, 불의에 대한 분노와 함께 기존 사회질서나 법을 무시하고 힘의 미학에 기반해 동지애를 나누고 야성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유교적

이처럼 개인적 정의와 분노를 힘(물리적 폭력)으로 표출한다는 의협의 서사는 우리나라 고전소설에서 적서차별이란 봉건 질서에 폭력으로 반기를 드는 「홍길동전」이나 개인적 복수가 유교적 충의 윤리와 결합한 군담소설 등으로 나타난다. 「유충렬전」과 「조웅전」 등 고전 군담소설들은 중국 송·명대를 배경으로 간신을 처단함으로써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윤리적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불의에 분노하는 영웅의 의협 행위는 간신의 목을 베고 살을 저며 "점점이 오려 놓고 간도 내어 씹어 보고 살도 베어 먹어보"[12]는 잔인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근대 소설에서 개인적 정의에 기반한 의협의 서사는 일제강점기의 특수성과 결합하며 사회 체제와의 불화와 저항이라는 의미를 환기한다. 이광수의 「무정」에서 경성학교 영어교사인 이형식에게 배학감과 교주에 대한 학생측의 스트라이크를 알리기 위해 찾아온 두 학생 중 '검은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듣는 김종렬은 부정한 세태에 비분강개하며 좌충우돌하는 의협을 보여준다. 그는 "속에 잇ᄂᆞᆫ바를 꺼림업시 말ᄒᆞ며 아모러ᄒᆞᆫ 어른의 압헤 가셔라도 셔슴지 안이ᄒᆞ고 졔 의견을 발표ᄒᆞᄂᆞᆫ 용긔가 잇"[13]으며 조금이라도 자기의 정의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당장에 위엄잇ᄂᆞᆫ 태도와 목쇼리로"[14] 지적하기를 잊지 않는 의협심으로 "주먹을 내어두르며"[15] 부패한 학교와 배학감에 대한 의분을 표현하고 주저 없이 퇴학청원이라는 강경책을 내세운다. 과격한 좌충우돌과 함께 결말에서 그는 "북간도 등지를 갓다ᄂᆞᆫ데 인해 쇼식을"[16]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라진다. 얌전하면서도 영민하게 지식을 습득하고 교육을 통해 상승하는 계몽지식청년의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무정」에서 이처럼 좌충우돌하는 비분강개형 인간은 무식하고 무례하며 성급한 모습으로 다소 우스꽝스럽고

충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논리하에 지배 질서나 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충돌한다고 본다. 박영종, 「협객의 충의와 유가적 충의의 충돌에서 바라본 〈수호전〉의 비극성」, 『중국어문학논집』 제3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5, 359-378면 참고.

12) 김기동 편, 「유충렬전」, 『한국고전문학 100』 6, 서문당, 1994, 134면.

13) 이광수, 『바로잡은 〈무정〉』, 김철 교주, 문학동네, 2003, 130-131면.

14) 같은 책, 131면.

15) 같은 책, 138면.

16) 같은 책, 719면.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역사소설을 비롯한 1920년대 이광수의 소설에서는 세련된 교양과 합리적 의식을 갖춘 (계몽)지식인과 대조해, 무식하지만 용감하고 자기만의 의리와 가치에 입각해 세계의 부당함에 맞서는 의협에 대한 긍정적 형상화가 이루어진다.[17] 「허생전」에서 자신만의 (무정부주의적) 논리로 사대부 등 (유교적) 지배질서와 불화하는 협객 허생의 면모를 그리는가 하면, 「단종애사」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을 제거하고 단종 복위를 꾀하다 죽는 사육신의 서사를 전면화하는 가운데 유교적 충의와 결합한 의협을 보여준다. 뛰어난 재주와 꾀를 가졌으나 의롭지 못한 '재사'의 반대편에서, 재주나 꾀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오직 그의 어리석다 할이큼 곧은 입"[18]으로 자신만의 정의를 내세우고 "그 결과로 수양대군의 노함을 사서 목이 몸에 붙어 있지 못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마는 그것이 의기남아가 밟은 가장 옳은 길"[19]이기에 폭력으로 저항하다 죽어가는 의협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다.[20] 이처럼 일제강점기 현실 가운데 의협의 서사는 김동인의 「젊은 그들」이나 한명희의 「임꺽정」, 윤백남의 「대도전」과 같이 역사를 배경으로 지배층의 윤리와 질서를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정의를 무력으로 추구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인물에 대한 서사로 나타난다.[21] 특히 일제강점기 근대소설에서 의협의 서사는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화된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살인이나 방화, 의거와 같은 물리적 폭력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동시에[22] 이성 중심 체계와 논리 이면에서 억압당하는 약자의 히스테리적

17) 이광수는 우화소설 「천안기」를 통해 모두에게 어리석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우직하게 자신만의 가치와 의리를 추구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무정」의 협객 김종렬을 긍정적으로 재구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주리, 「춘원과 파리—이광수의 〈천안기〉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7 참고.

18) 이광수, 「단종애사」, 『이광수전집』 5, 삼중당, 1963, 358면.

19) 같은 책, 331면.

20) 20년대 이광수의 역사소설 속 우직한 의인의 서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김주리, 「우울한 주체의 울분과 광기—이광수의 〈마의태자〉와 〈단종애사〉에 대한 고찰」, 『상허학보』 제52집, 상허학회, 2018 참고.

21) 일제강점기 소설에서 협객은 당대 사회의 인물로 그려지기보다 역사 속 인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식민지의 현실에서 개인적 정의에 입각해 폭력으로 사회 질서에 반기를 드는 인물에 대한 형상화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60년대 후반 개발독재 체제에서 무협소설 붐이 일어난 상황과도 관련된다.

폭력으로 형상화되는 등 다양한 저항과 비판의 서사와 연계된다.[23]

개인적 의협으로 부정한 사회 질서와 대결하는 서사는 해방 이후 남북한 이데올로기 갈등 가운데 역사소설뿐 아니라[24] 선우휘의 「불꽃」(1957)이나 오상원의 「모반」(1958) 등 당대 사회를 배경으로 이데올로기나 체제에 저항하는 휴머니즘의 서사로 나타나거나, 박영준의 「형관」(1955) 등 부정한 세태에 대한 폭력적 대응의 서사로 나타난다. 「형관」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돌아"[25]와 대학에 복학하기까지 "무술을 하는 사람은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26] "당수도의 교훈인 현정파사(顯正破邪)의 교훈을 가슴 속에 아로새김으로 마음속의 사(邪)를 쫓아보자는"[27] 신념을 가진 당수도 유단자 현주가 가난으로 고통 받는 홍광운 남매, 곗돈을 떼이고 연인에게 협박당하던 정혜련, 계모의 학대로 가출해 양공주 생활을 하는 최복희 등의 문제를 당수도로 해결하는 가운데 과실치사를 저지르는 이야기와 함께, 엄격하게 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인 형 한주가 헤어진 연인이 저지른 살인 사건을 사적 감정 갈등 속에서도 공정하게 처리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형 한주의 서사가 법과 규율에 입각한 정의를 추구하는 친사회적 성격을 보여준다면, 동생

22) 슬라보예 지젝은 테러와 같이 타자가 행하는 물리적(주관적) 폭력의 층위 이면에 존재하는 지배 질서의 구조적 폭력과 상징(언어)적 폭력의 의미를 재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폭력에 대한 6가지 삐딱한 성찰』, 이현우 외 역, 난장이, 2010 참고. 구조적, 언어적 폭력에 저항하는 약자의 물리적 폭력은 약자의 울분과 광기, 폭력을 그리는 최서해의 소설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3)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은 가부장제나 문자가 정신과 물질의 분리에 의해 여성의 육체와 자연의 추상화를 나타내는 반면 히스테리는 서구 이성의 역사에서 추방된 자연, 섹슈얼리티, 육체성의 의미를 왜곡된 형태로나마 드러나게 해줌으로써 로고스 중심주의 체제에 저항한다고 본다.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히스테리』, 엄양선·윤명숙 역, 여이연, 2003 참고. 여성의 히스테리는 채만식의 「탁류」나 김말봉의 「밀림」 등에서 광기와 물리적 폭력을 수반함으로써 이성 중심 가부장제 체제에 대한 저항과 울분, 의분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서는 김주리, 「채만식의 〈탁류〉에 나타난 여성 폭력과 히스테리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3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참고.

24) 해방기와 6.25를 전후한 시기에도 역사를 배경으로 「신 서유기」와 같은 정치 풍자소설이나 기담 형식으로 의협 소설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명환 외, 「해방이후 대구 경북 지역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발굴조사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참고.

25) 박영준, 「형관」, 『만우 박영준 전집』 9, 동연, 2006, 239면.

26) 같은 책, 235면.

27) 같은 책, 316면.

현주의 서사는 사기와 협잡, 부정이 횡행하는 세계에 폭력(무술)으로 맞서면서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추구하는 반사회적 의협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가운데 당수도 유단자 현주가 과실치사로 입건되고 검사 한주가 공정한 수사로 애인의 살해행위를 밝히는 결말은 사회 체제와 질서의 안정을 위해 개인적 의협이 아니라 법적 정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잉여인간」이 부정적인 당대 사회 현실에 비분강개하며 개인적 정의감으로 좌충우돌하는 인간형을 제시한 1950년대 후반 이후 손창섭 소설에는 사회질서나 체제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인물들이 종종 나타난다. 개인적 윤리에 입각해 부정적 사회를 개탄하고 법이나 규칙, 윤리와 같은 사회질서까지 이반하는 의협의 서사가 펼쳐지는 것이다. 1959년 『사상계』에 발표한 첫 장편소설 「낙서족」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자신이 몸담은 세계와 불화하고 개인적 신념과 정의에 입각해 부당한 사회질서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인간형을 주인공으로 제시하고 있다.[28] 소설에서 독립운동가의 아들인 주인공 도현의 행동은 억압적 사회에 대한 울분과 폭력적 저항으로 집약된다.

> 인간의 가치란 경찰이 중요시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묘한 해석을 갖게 되었다. 도현은 우선 자기가 유가치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빈껍데기에 알맹이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알맹이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눈부신 〈행동〉이다.[29]

---

28) 「낙서족」은 손창섭의 첫 장편소설로서, 기존 연구사에서 「신의 희작」과 함께 자전적인 소설로 고찰되면서 외디푸스 콤플렉스와 이에서 기원하는 피메일 콤플렉스,(공종구, 「손창섭 소설의 기원」,『현대소설연구』 제4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양정임, 「손창섭 〈낙서족〉의 '껍데기/알맹이'의 상징성 연구」, 『어문학』 제114집, 한국어문학회, 2011 등.) 사디즘과 매저키즘(박죽심, 「손창섭의 자전적 성격의 소설에 나타난 의미 고찰」, 『어문논집』 제53집, 중앙어문학회, 2013; 김명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작중인물의 병인적 요소」,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등.) 등 손창섭의 무의식세계를 보여주는 한편 이방인 의식(류동규, 「탈민족의 관점에서 본 〈낙서족〉」, 『어문학』 제96집, 한국어문학회, 2007; 우현주, 「재일 디아스포라 인물들의 정체성 연구」, 『차세대인문사회연구』 제5호,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2009 등.)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강애경,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 손창섭의 소설적 기획」, 『한국예술연구』 제18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7.) 등 작가의 의식세계 해명에 주요한 단서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김성한, 장용학 등 학병세대(전후) 작가군의 의식을 투영한 소설로 의미매김되어 왔다.(방민호, 「손창섭의 〈낙서족〉에 대한 일고찰—자전적 소설과 세대론의 관점에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3집, 한국현대문학회, 2003; 류동규, 「전후 작가의 식민지 기억과 그 재현」, 『현대소설연구』 제4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등.)

그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에 저항하는 '행동'으로 경찰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묘한' 신념으로, "학업에만 전심"[30]하여 "의사가 되어서 불쌍한 동포의 질병과 싸우는 일이나, 변호사가 되어 부당히 투옥되고 학살당하는 애국지사들을 위해 법정 투쟁을 하는 일이, 조국이나 부친님께 보답하는 가장 떳떳한 길일 것이라는"[31] 상희와 어머니의 논리를 배반한다. 공안경찰과 교사에게 박치기를 하고 은행에 협박전화를 걸거나 다이너마이트를 제작하고 일본 여성을 강간하는 등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그의 '행동'이란 곧 그가 저항하는 대상이 일제의 부당한 감시와 억압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는 감시와 고문으로 그에게 일본인 되기를 강요하는 제국 일본에 저항하는 동시에, 돌봄과 충고로 그에게 학업에 충실해 성공한 지식인 되기를 요구하는 어머니-상희의 논리에 저항한다.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는 호명은 그에게 이중의 상징 폭력으로 작동하는 바,[32] 감시하는 일본 공안의 시선에서 이는 불령선인-테러리스트-범죄자의 음험함을 내포하는 한편 어머니-상희의 시선에서 이는 독립운동가-지식인-지도자의 숭고함을 내포한다. 테러리스트의 음험함이든 지도자의 숭고함이든, 혐오와 숭고의 대상으로 타자화되는 자리에서 그는 물리적 폭력을 통해 자신만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현이 동경에서 저지르는 온갖 소동과 폭력은 '독립운동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야 한다'는 개인적 정의와 신념이, 일본 여성과의 결혼 등 처세의 방법으로 동화되기를 요구하는 제국 일본의 공안 질서와 충돌하는 것인 동시에 학업에 전념해 교양을 쌓아 피식민 지식인 지도자로서 성공하기를 요구하는 어머니-상희의 계몽 윤리와 충돌하는 것이기도 하다.[33] "내게는 학생

29) 손창섭, 「낙서족」, 『현대한국문학전집』 3, 신구문화사, 1981, 41면.
30) 같은 책, 60면.
31) 같은 책, 61면.
32) 슬라보예 지젝은 특정 타자를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반대로 특정 타자를 관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 모두가 동일한 배제와 차별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타자를 경멸하는 호명이나 타자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호명은 모두 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폭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73-103면 참고.
33) 천정환은 생존과 실용의 가치를 가진 부정적 테크닉으로서 처세와, 반실용과 합리적 이성의 가치를 표방하는 교양이 자기계발의 모순적 양극이면서도 개인의 오성을 관통하는 삶의 양식이자 규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결합되어 있다고 보며 1960년대는 이러한 처세와 교양의 자기계발 독서

을 보호하구 친절히 돌봐 줄 의무와 직분이 있단 말이지."[34]라는 일본 경찰의 감시 논리는, 어떤 점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외지에서 투쟁하시는 부친은 물론 가엾은 모친을 위해서도 부디 대성하기를 바란다는 싱거운 설교"[35]와 동일한 사회적 규범으로서 도현의 신념과 충돌한다. 그에게 '성공'을 강박하는 어머니-상희의 논리는 "도현씨의 그 나이브한 성품과 저돌적인 용감성을 잘 조절"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주도한 계획 밑에 인내와 노력과 수양의 과정을 거"[36]쳐야 한다며 "경찰관에게 아무리 모욕적인 심문을 받더라도 화내는 일 없이 고분고분 겸손하게 대하라는"[37] 요구로 이어지기에, 감시하고 고문하는 일제 공안의 논리와 상통한다. 그러한 외부의 논리와 규칙들은 동일하게 "냉철하고 침착한 태도, 그리고 조리 있는 화술"로 도현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압도"[38]하며 패배감과 울분을 자아낸다. 도현은 '눈부신 행동'으로 독립운동가 아버지의 뜻을 잇는다는, 자신만의 정의에 입각해 제국(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의 처세) 또는 성공(이성 중심 체제의 수양)이라는 사회 질서와 규칙에 저항하는 것이다. '나이브한 성품'과 '저돌적인 용감성'으로 그는 제국 공안의 규율에 따라 일본 여성과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동시에 어머니-상희의 논리에 따라 계몽지식인으로 성공하기도 거부한다.

> 대뜸 걷잡을 수 없는 울분이 울컥 가슴을 치민 것이다. (…)
> 「수틀리면 지끈 딱하고 받아 넘길 테다!」
> 그 〈지끈 딱〉은 도현의 유일한 무기였다. 평양에서도 망나니패로 유명한 서성리 바닥에서 자라난 도현은 헤딩의 명수였다. (…) 도현은 지금 그 무기를 다시 들고 나선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그 〈지끈 딱〉으로 일본의 경찰 권력과 정면으로 맞서 보자는 것인지도 모른다.[39]

문화가 완성된 시기라고 설명한다. 천정환, 「처세·교양·실존—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학사연구』 제4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92면.

34) 손창섭, 앞의 책, 1981, 29면.
35) 같은 책, 12면.
36) 같은 책, 74면.
37) 같은 책, 26면.
38) 같은 책, 30면.
39) 같은 책, 27면.

일제 공안 경찰의 감시와 어머니-상희의 훈육에 동시에 저항하는 그의 의협은 '지끈 딱', 즉 '망나니패'의 물리적 폭력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물리적 폭력은 일본 여성에 대한 강간이나 폭탄 테러 계획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그에게 있어 정의의 준거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범하는 존재이며 싸우는 존재로 각인된 까닭이다.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머니 위에 올라타구 막 때린다구 생각"[40]된 성관계의 장면이다. 이 때문에 그가 내면화한 정의란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이며 상대 위에 올라타고 폭력적으로 그를 점령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만의 정의에 따라 그는 "강필재와 차행준, 안광욱을 비롯해서 5, 6명의 조선인 동창생들"[41]과 연대해 "천황을 죽이고 경찰을 습격한다"[42]는 테러를 계획하거나 일본 여성을 강간하는 폭행을 자행한다. "일본 경찰에 대한 아니 일본인 전체에 대한 복수심"으로 "도현은 자기에게 노리꼬를 정복할- 혹은 유린할 권리가 당당히 있다고 생각했다."[43] "흥, 위대한 독립투사의 아드님이 이번엔 강간죄로 걸려들었구나!"[44]라는 일본 경찰의 비웃음은 독립투사이기에 일본에 복수하기 위해 일본 여성을 강간한다는 도현의 개인적 정의와 의협이 가진 반사회적 성격, 즉 히스테리적 측면을 노출한다. 이처럼 일본경찰의 처세 논리와 조선지식인의 수양 논리 모두에 대한 그의 저항은 협박과 폭행, 강간과 폭발물 제작 등 범죄(혐오)와 독립운동(숭고)의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지는데, 이는 독립운동가의 아들로서 자신을 혐오 또는 숭고로 타자화하는 사회의 구조적, 상징적 폭력에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저마다 가슴 속에」(1960)에서는 3.15 부정선거를 앞둔 이승만 정권 말기의 부패한 권력과 자본주의 사회 속 속물적인 처세술에 저항해 교육자의 순수라는 자신만의 정의를 추구하며 각종 소동을 일으키는 교사 천봉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45] "고상익 의원의 주선으로 간신히"[46] 서울 외곽 초

40) 같은 책, 33면.
41) 같은 책, 67면.
42) 같은 책, 107면.
43) 같은 책, 52면.
44) 같은 책, 94면.

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그는 “선생님은 처세에 너무 태평이세요. 좀 나쁘게 말하면 둔하시다구 할까요.”[47]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교사란 아이들을 충실히 교육하는데 전심 전력하면 될 일이”[48]라는 자기만의 정의를 내세우며, 국장부인을 비롯한 자모회 임원진과 교감, 권력가의 아들과 장학사, 신문기자와 경찰 등 처세에 영합하는 집단과 충돌을 일으킨다. 그는 권력에의 복종과 사회적 처신을 강요하는 처세의 논리에 “전, 저를 못 먹어하는 것들이 있는 앞에서구 없는 데서구, 얼마든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야 화를 안 내구 견딜 수 있습니까.”[49]라고 분노하며 부당한 권력 질서의 대리격인 자모회 간사들과 기회주의자 교감의 횡포에 맞서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신의 정의(교육철학)를 지켜나간다. “우여사, 한선생, 박인숙, 그리고 고의원의 딸 정란”[50] 등 일군의 미혼여성들은 그에게서 “더 없이 곧구 바른 사람”[51]을 발견하고 세상과 불화하는 올바름에 공명해 그의 투쟁에 조력한다. 그런데 천봉우가 자신에 공명하는 미혼여성들과 동지적 연대보다는 연애관계를 형성하는 까닭에, 소설에서 그의 의협은 숭고한 정신과 불온한 욕망 사이에서 모호하게 균열한다. 그를 둘러싼 온갖 협잡과 폭력, 소동과 음모가 특히 미혼남성으로서의 처신과 욕망을 문제삼아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의 의협이 과연 남성으로서의 욕망과 무관한가를 묻게 만든다. 다시 말해 그가 우여사와 편지교환을 하거나 박인숙에게 돈을 빌려주고 한선생과 천변을 걸으며 대화하는 행위가 과연 ‘교사란 아이들을

45) 「저마다 가슴 속에」는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1월 31일까지 『세계일보』(『민국일보』)에 연재되었고 1970년 예문관의 『손창섭대표작전집』에 수록될 때 제목이 「통속의 벽」으로 바뀌었다. 최미진은 이 소설이 1958년 현대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 「고독한 영웅」과 주인공의 유사성이란 측면에서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최미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교원과 교원사회 연구—〈고독한 영웅〉과 〈통속의 벽〉의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30집,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
46) 손창섭, 「통속의 벽」, 『손창섭대표작전집』 5, 예문관, 1970b, 27면.
47) 같은 책, 22면.
48) 같은 책, 22면.
49) 같은 책, 21면.
50) 같은 책, 52면.
51) 같은 책, 34면.

충실히 교육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존재라는 그의 신념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문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 같은 애정으로 자신을 돌보는 우여사나 같은 교육자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한선생이 아니라 별다른 교유가 없는 박인숙에게 집착하는 그의 모습은, 박인숙의 동생에게 청소를 대신 시킨 국장 아들에 대한 처벌을 둘러싼 소동 같은 그의 의협이 교육자로서의 신념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애욕에서 우러난 것으로 혼동될 여지를 남긴다.

이는 부정한 사회의 처세에 저항한다는 그의 의협이 과연 소설에서 얼마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소설에서 교육관을 관철하면서도 그가 교사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그의 의협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세에 능한 한선생의 수완 덕분이다. 천봉우의 교육관에 공명한 한선생은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그의 의협 이면에서 때로는 자모회 간사나 권력가 친척의 힘을 동원하고 때로는 논리적 강변으로 상대를 설득함으로써 천봉우가 경찰의 감시까지 당하는 상황에서도 교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점에서 「저마다 가슴속에」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사활을 건 3.15 정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사기와 협잡, 음모와 뒷공론, "도처에서 공공연하게 협박 공갈과 폭행"[52]이 일상화된 시대적 현실을 배경으로 정의로운 교육가의 의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서 이러한 의협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다. 자신만의 정의를 주장하며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의협이란 올바름에 대한 자아도취적 관념에 머물 뿐 사회 질서를 압도하거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 공허한 폭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손창섭의 「낙서족」과 「저마다 가슴속에」는 일제강점기와 3.15 부정선거라는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사회의 구조화된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개인적 정의에 기반한 반체제적 의협과 저항하는 폭력의 의미를 서사화하고 있다. 그러나 반체제적 의협은 개인적 울분의 히스테리나 욕망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손창섭 소설 속 의협의 서사는 사회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대신에 무의미한 소동이나 단순한 폭력의 유희로 귀결할 가

52) 같은 책, 302면.

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부랑화한 의협과 무의미한 폭력

손창섭이 1956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사제한」은 “서울서도 유명한 뒷골목 가장 헐값으로 매매되는 육체의 암시장”[53] 한복판에서 신문사 영업소를 맡아보며 매춘부들의 편지를 대필해주면서 그녀들을 동정해 온 지식인 진수와 “소위 서울의 어깨 패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만치 “그만큼 주먹으로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54] 된 깡패 하교가 “흔히 무저항주의니, 인고니, 인욕이니 하는 말을 내세”우는 것으로 “조금치도 적극적인 어떤 의욕을 찾아볼” 길 없이 “너무나 무능한 존재”인 “자신을 합리화시키”[55]는 중학교 은사 홍선생의 봉변을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 만날 한다는 소리가 양심적으로 살아라, 정의에 벗어나지 말라라니, 그래 저만 내놓구 세상 사람이 왼통 도둑놈이란 말이냐. 이 사회나 시대가 그저 교실이거나 도덕시간인 줄만 아는 모양인가. 그 약아빠진 놈들의 음모와 계략에 걸려 어디서나 직장을 쫓겨나가지구 빌빌 천대와 괄세만 받아오는 게 그래 양심과 정의란 말이냐. 그 주제에 노상 자기만이 가장 정당하게 살구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니[56]

「저마다 가슴 속에」의 주인공 천봉우를 떠올리게 하는 홍선생은 교육계에서 쫓겨나 적극적으로 생활 방편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무능하게 일상을 영위하면서도 늘 양심과 정의를 외치고 비폭력 저항을 주장한다. 이러한 홍선생의 신념에 교감하는 진수와 달리 하교는 “인생은 그대로 만사가 싸움인 것이다. 무기 없는 인간이 도대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57]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홍선생이 매춘부와 화대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한 것은 지식인 진수의 (비폭력) 설득이 아니라 하교의 (폭력) 주먹이다. “진

53) 손창섭, 「사제한」, 『손창섭단편전집』 1, 가람기획, 2005, 311면.
54) 같은 책, 317면.
55) 같은 책, 304면.
56) 같은 책, 305면.
57) 같은 책, 307면.

수나 홍 선생 따위로는 어림도 없는 사건을 하교의 주먹으로 우스울 만치 통쾌하게 수습해버렸다."[58] 이처럼 양심과 도덕, 윤리와 비폭력 저항을 외치는 지식인의 윤리(정의)와 대립되는 자리에 폭력배-무뢰한의 주먹(폭력)이 가로놓일 때, 의협의 성격은 모호해지고 모순된 것이 되고 만다. 물리적 힘을 갖지 못한 정의는 무력하고, 이유를 상실한 폭력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에 분노해 자신만의 의로움을 폭력으로 추구하는 인물의 서사는 해방 이후 첨예한 좌우익 이데올로기 대립 가운데 정치적 테러리즘의 서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선우휘는 「테러리스트」나 「깃발 없는 기수」를 통해 서북청년단과 같은 백색 테러를 자행하는 인물들을 형상화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옳다는 확신으로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며 폭력을 가하는 정치 협객의 환멸과 방향을 상실한 폭력을 보여준다. 테러리스트와 범죄자, 정치 협객과 폭력배는 근대 사회의 질서가 안정되면 될수록 그 경계가 흔들린다. 사상과 치안 혼란기에는 자신만의 정의로 흔들리는 사회 규범과 질서에 대항해 의로움을 추구하는 폭력이 가능하며 긍정될 수 있으나 법과 규칙에 의해 안정된 사회, 특히 치밀하고 강력한 법과 규범으로 육체를 훈육하는 근대 사회에서 개인적인 정의에 기반한 의협 폭력이란 처벌되어야 할 범죄로 간주되기 마련이다. 특히 개발독재 체제의 60년대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적인 의협은 지배질서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저항이 아니라 무뢰한, 폭력배의 현실 도피적 활극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다.

손창섭의 60년대 장편소설 속 의협의 세계는 개인적 정의와 물리적 폭력 사이에서 일정한 균열을 나타낸다. 박정희 정부가 단행한 "6.10 화폐개혁 이후부터의 일"[59]을 그리고 있는 「인간교실」(1963)은 두 협객(집단)이 행하는 상이한 선택을 보여준다. 먼저 "자유당 말기에 비닐 생산업에 허턱 손을 댔다가 실패하고 4.19 이후에는 엉뚱하게도 혁신적인 어느 정당에 가담했다가 5.16 때 서리를 맞은 이래, 한결같이 자숙해 오면서 실직 상태에 있"[60]는 중년

58) 같은 책, 328면.
59) 손창섭, 『인간교실』, 예옥, 2008, 7면.
60) 같은 책, 7면.

남성 주인갑은 가부장제 사회의 "도덕적 한계가 왜 남녀에 따라 다르단"[61] 것인지를 문제 제기하면서 "남녀동등권이요 인권이요를 걸핏하면 내세우는 요즘 세상에선 정숙이니 부도니 하고 남자 쪽에만 편리한 보통명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잘 묶어놓는다는 건 당치 않은 일이"[62]기에 "부부가 한쪽에선 놀아나고 한쪽에선 안 놀아나는 모순에서 오는 불화와 고민을 겪느니보다는 차라리 함께 놀아날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부부생활의 평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63]다며 도덕과 정숙, 부도의 윤리에 저항해 "'이성간의 부분 계약'이나 혹은 '절제 있는 건전한 방탕'"[64]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인갑의 정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육체를 억압해온 당대의 가부장적 성윤리에 반기를 드는 동시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자기화하는 방식으로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일부일처제 질서에 대한 이반을 나타낸다. 그는 이러한 개인적 정의에 따라 자신이 욕망하는 황여인과의 '절제 있는 건전한 방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황여인의 남편이나 자신의 아내 남혜경, 황여인의 애인 김청년 등과 폭행 소동을 일으키거나 도피 추적의 활극을 벌이지만 최후로 아내 혜경과 이혼하고 김청년과 함께 시골에 정착하는 것으로 자신이 비판해온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일부일처제 질서에 투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년남성 주인갑의 남녀평등에 기반한 건전한 방탕이라는 의협이 무의미한 소동 끝에 당대 가부장제 질서로 투항해가는 반면 주인갑의 집 뒷방에 세든 대학생 윤명주와 조선영, 안동철은 주인갑의 소극적 정의보다 더 적극적인 정의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법을 위반하는 사기, 협박,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똥 묻은 개가 어떻게 겨 묻은 개를 흉볼 수 있고 누가 감히 음란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서 돌로 칠 수가 있느냐"[65]고 되물으며 "온통 발정기의 동물로밖에"[66] 보이지 않는 남성들, 특히 "인격자니 고상한 인물이

61) 같은 책, 181면.
62) 같은 책, 183면.
63) 같은 책, 194면.
64) 같은 책, 205면.
65) 같은 책, 143면.
66) 같은 책, 143면.

니” 하지만 아름다운 여대생 매춘부의 육체 앞에서는 “단박. 아주 열렬한 단골손님이 돼버”[67]리는 “소위 사회의 저명인사라는 것들이 미스 윤을 찾아와 침을 질질 흘리며 녹아나는 꼬락서니”[68] 앞에서 사회의 질서, 윤리나 도덕 자체를 전복하고 자신들만의 정의로서 “가슴 깊이 품어온 남성에 대한 복수 계획, 미스 윤의 낭만적인 장래의 설계도”[69]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협을 발휘한다. 그들의 의협은 기업 사장, 상인, 의학박사, 교수,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자의 매음장면을 촬영하고 그들을 협박해 자금을 “뜯어내서 사복을 채우”[70]지 않고 “기술 고등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재능은 있으면서도 중 고교에 진학할 수 없는 농촌 출신의 자녀에게 무료나 실비로 각종 기술교육을 시켜서 당당한 기술자로 세상에 내보내는”[71] 사회사업 삼정학원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성관계 촬영이나 협박, 공갈과 폭행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의 당당함은 자신들이 사회지도층보다 더 정의로우며 자신들의 정의가 세상의 법률보다 더 올바르다는 믿음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 주인갑 씨 자신 더욱 이상한 것은 여자를 찾아오는 놈팽이들에게는 지저분하고 불결한 느낌이 들면서도 정작 이러한 미스 윤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감이 없이 도리어 일반 여성 이상으로 건전하고 싱싱하게 느껴지는 일이었다. (…)
>
> “육체를 파는 사람보다 오히려 정신을, 즉 의리나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것들이 더 한심하지 않아요?[72]

문제는 주인갑 역시 그들의 정의에 동의하면서도 그들이 행하는 의협, 즉 범죄나 불법점유, 폭력에 공포를 느낀다는 데 있다. “주인갑 씨는 못 먹을 것을 억지로 먹은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그대로 방에 돌아와버리긴 했지만 보통 비위나 수단이 아닌 이 젊은 애들이 겁이 나기도 했다.”[73] ‘절제 있는 건전

67) 같은 책, 144면.
68) 같은 책, 145면.
69) 같은 책, 145면.
70) 같은 책, 164면.
71) 같은 책, 163면.
72) 같은 책, 153면.

한 방탕'이라는 중년남성 주인갑의 소극적(친사회적) 정의에서 청년들의 (반사회적) 정의와 그에 기반한 행동은 사회의 위선에 대한 공격이기에 매력적인 동시에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범죄, 범법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것이 된다. 그는 이들의 의협 폭력, 즉 폭행과 점유, 사기 협잡의 폭력에 대한 공포로 몰래 집을 팔고 "부패와 타락의 요소가 들끓는 도회지를 떠나"[74], 사생아 출신에 대한 죄의식으로 "참회와 재생의 길을 택하"[75]겠다며 일부일처제 윤리에 집착하는 김청년이 있는 시골로 향한다. 이러한 주인갑의 선택이란 결국 이들 대학생이 가진 개인적 정의와 그들이 행하는 의협에 중년남성 주인갑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주인공 주인갑의 시선을 따를 때) 그들의 행동이 개인적 정의로서 사회의 불의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의협 폭력이기보다 범죄 활극이나 투기 또는 사기로서 불한당화한다는 점과 결부된다.[76] 다시 말해 「낙서족」의 도현이 자신을 혐오 또는 숭고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구조적 폭력에 맞서 부정적인 사회질서와 계몽 윤리 모두에 저항하는 물리적 폭력으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함으로써 가질 수 있었던 반체제적 의협의 가능성은, 60년대 중반 장편소설들에서 소극적이고 친사회적 정의를 표현하는 주인공을 내세움으로써 부당한 협잡(「인간교실」)이나 폭력배의 파괴 행위(「아들들」)로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다.

1965년 『국제신문』에 발표된 「아들들」은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간의 우애, 장자의 권위 같은 유교적 규범이 개인의 자유와 성실을 통한 성공이라는 자본주의적 규범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효를 개인적 정의로 받아들여 "부모 앞에서는 그토록 진정이 넘치고 선량"[77]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건달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깡패 비슷한"[78] 넷째 아들과, 근검절

73) 같은 책, 170면.
74) 같은 책, 279면.
75) 같은 책, 193면.
76) 이는 「인간교실」을 비롯해 「이성연구」나 「부부」 등 손창섭의 60년대 사회사업에 대한 서사들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려지는 점과도 결부된다. 김남희는 이들 소설에서 사회사업이 공사영역을 관통하는 파괴적 '증여'와 교환의 관계구조로 서사화됨을 보여준다. 김남희, 「1960년대 개발발전국가의 '증여통치' 일고」, 『반교어문연구』 제44집, 반교어문학회, 2014.
77) 손창섭, 「아들들」, 『손창섭대표작전집』 3, 예문관, 1970a, 43면.

약과 성실이라는 자본주의 윤리를 받아들이기에 “돈과 출세에는 눈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일엔 놀랄 만치 민감히 두뇌가 움직이는”[79] 둘째 아들 간 폭력과 폭행의 활극을 서사화하고 있다. “소심한 것이 흠이라면 흠일지 모르나” “마음이 어질고 순한 사람”[80]으로서 효와 우애라는 유교적 윤리를 체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각박한 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적합지가 않아서”[81] 자본주의 사회 속 점점 몰락해가는 큰아들(과 넷째아들)과, 초등학교 졸업 이력만으로 취업해 성실성을 인정받아 “제법 실속 있는 회사 사장의 사위요, 신용이 두터운 상무님”[82]으로 성공했으나 효와 우애에는 관심이 없는 둘째(와 셋째) 아들은 60년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두 질서 간 대립을 축약해 보인다. 소설은 아버지의 회갑잔치를 기점으로 효를 다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찾아서까지 큰 비용을 담당하는 첫째(와 넷째)와, 자본가라는 위치에 걸맞지 않게 적은 돈을 내면서 부모의 생활비를 나누는 데 불만을 늘어놓는 둘째(와 셋째)의 모습을 대조하는 가운데,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치료비와 생활비, 막내아들의 학비 등을 놓고 넷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간 고소, 고발,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활극을 그려나간다. 그 가운데 효와 우애라는 (유교적) 윤리를 자기화한 첫째와 넷째 아들은 근검절약과 성실이라는 자본주의(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자기화한 둘째와 셋째 아들이 욕망을 좇아 성공해 가는 것과 달리 자살하거나 살인을 저질러 투옥되는 등 몰락해간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체격이 좋을 뿐 아니라 당수가 이단”[83]인 넷째 아들은 부모의 집을 팔아 그 이자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겠다는 둘째와 셋째 아들의 계획을 반대하며 “주먹을 쓸 땐 써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주먹 세상예요. 의리나 도의나 양심 같은 게 통하는 세상인 줄 아세요. 주먹맛을 봐야 할 상대에겐 주먹을 써야 한

78) 같은 책, 43면.
79) 같은 책, 125면.
80) 같은 책, 27면.
81) 같은 책, 27면.
82) 같은 책, 20면.
83) 같은 책, 43면.

단 말예요."[84]라며 형들에게 의협 폭력을 휘두른 끝에 사람을 죽이고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이 사건의 장본인마저 죽여버리"[85]겠다고 "둘째 형까지 해치울 생각에서 회사로 달려갔다가 거기서 체포되고"[86] 만다. 이처럼 「아들들」이 형상화하는 의협은 자본주의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인 한편 효와 같은 개발독재 시대 가부장제 윤리를 내포한 것이기에 문제적이다. 그 폭력은 당대의 사회질서에 저항하는 것인 동시에 그 사회의 윤리에 포섭된 것이기도 하다는 모순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손창섭이 68-69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길」에서도 반복된다.

「길」은 순진한 사춘기 소년 성칠의 의분과 의협이 무력한 폭행과 소동만 반복할 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소설은 '성공해야 한다'는 지상명령을 새기며 상경한 사춘기 소년 성칠이 2년 반 동안의 서울살이를 통해 진옥여관과 자성공업사, 구두닦이와 고리대금, 과일행상에 이르기까지의 편력을 그리는 한편 그가 자신이 믿는 정의에 입각해 서울사람들과 충돌하는 각종 소동을 그리고 있다. "국민학교 오학년 때 담임이었던 정선생님"[87]의 가르침을 교본처럼 믿고 따르는 그는 교과서의 윤리 그대로를 사회에 적용해 유원지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공중도덕심이 없"[88]다는 이유로 폭행시비를 거는 것을 시작으로 가로수를 꺾는 행인 청년에게 "국민은 누구나 나물 아껴야 하지 않아요?"[89]라고 훈계하다 얻어맞고 "장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라 일은 않구, 국민의 돈이나 긁어먹음 돼요?"[90]라는 말로 강이사(청파동 아저씨)와 대립하다 그의 수하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진옥여관 여주인에게 유혹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 개, 개 같은 년"[91]이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여자의 얼굴을 힘껏 후

84) 같은 책, 127면.
85) 같은 책, 239면.
86) 같은 책, 300면.
87) 손창섭, 『길』, 북갤럽, 2002, 117면.
88) 같은 책, 83면.
89) 같은 책, 114면.
90) 같은 책, 104면.
91) 같은 책, 218면.

려"[92]치는가 하면 우연히 끌려간 사창굴에서 "서로 치고 차고 난장판"[93]을 벌이며 싸워댄다. 부품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나무라는 공업사 사장에게 "사장님이면 사장님답게 좀 점잖게 구세요"[94]라고 훈계하다 얻어맞고 쫓겨나는가 하면 구두닦이를 하다 강아지를 끌고 가는 개장수에게 "아무리 짐승이라두,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다루면 못써요."[95]라고 참견하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도로를 건너는 남녀에게 "신사가 뭐가 이래. 교통신호 하나 제대로 못 지키구."[96]라고 대꾸해 구둣발로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자신의 고지식함을 놀린다는 이유로 기숙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다른 남자와 시시덕거린다는 이유로 봉순에게 손찌검을 가한다. 이처럼 대도시 서울에서 완고한 윤리를 고집하는 소년 성칠은 이를 위반하는 서울사람들의 처세와 행동에 폭행을 가하거나 그 때문에 폭행을 당한다.

> 상경 이래 성칠은 벌써 여러 차례 남과 싸웠다. 서울 사람은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시골 사람 이상으로 덜 돼먹은 족속이 많았다. 대도시에 살면서 공중도덕 하나 제대로 지킬 줄 모르다니 말이 되느냐 말이다. (…)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나왔음직한 사람 중에도, 그러한 공중도덕을 지킬 줄 모르는 자가 있는 걸 보면 덜 돼먹은 인간에겐 공부도 다 소용이 없나 보다.[97]

문제는 '성공해야 한다'는 그의 지상명령이 그가 가진 개인적 윤리와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에 있다. 성공해야 한다는 지상명령에 따라 그는 "첫째는 부자가 되는 길, 둘째는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 같은 것이 되어서 권세를 잡는 길, 셋째는 공부를 많이 해서 유명한 학자가 되는 길"[98]을 밟아야 하지만 부자나 권력, 지식이 곧바로 정직함과 점잖음 같은 그의 윤리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윤리적 표준이 성공에 방해가 된

92) 같은 책, 219면.
93) 같은 책, 278면.
94) 같은 책, 285면.
95) 같은 책, 315면.
96) 같은 책, 316면.
97) 같은 책, 321면.
98) 같은 책, 64면.

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에 대한 성칠의 소박한 가치평가의 척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99] “아무리 정직하고 품행이 방정하더라도 지위나 돈이 없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100] 그는 점잖음을 추구했기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진옥여관에서 떠나고 정직함을 추구했기에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자동차공업소에서 쫓겨나며, 이로 인해 그가 추구하는 성공은 자꾸만 지연된다. 이처럼 성공이라는 목표와 개인적 윤리가 상충하는 자리에서 그는 공중도덕에 대한 강박, 정직과 점잖음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 좌충우돌함으로써 일견 당대 사회질서와 불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수행하는 윤리란 사실 60년대 개발독재 시대 공중도덕과 국민윤리로 강요되는 규범들이며 이러한 교과서적 규범을 반성 없이 수용한다는 점에서 그는 오히려 친사회적 존재로 간주된다. 그가 2년 8개월간의 서울살이 가운데 좌충우돌하면서도 근검절약과 성실함으로 “이십여 만원의 저금을 할 수 있는 정도”[101]로 자본을 축적한다는 것은 결국 그가 60년대 개발독재 가부장제 자본주의 질서나 윤리와 본질적으로 대립하지 않음을, 그의 의협이 친사회적 윤리로 귀결함을 보여준다.[102] “진실한 의미에서의 출세나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느끼면서.”[103] 마무리되는 「길」의 귀향이란 정직함과 점잖음이라는 국민윤리에 대한 강박과, 출세나 성공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가 표면으로는 배치되더라도 이면에서는 지배질서의 논리에 귀속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1960년대 중후반 손창섭의 장

99) 같은 책, 96면.
100) 같은 책, 97면.
101) 같은 책, 536면.
102) 기존 연구사에서는 이러한 성칠의 면모를 자본주의의 이상적 인간형으로 긍정하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이동하, 「손창섭의 〈길〉에 대한 한 고찰」, 『작가연구』 창간호, 새미, 1996.) 60년대 개발동원체제가 만들어낸 정신주의와 도덕주의와 함께 간접화된 부르주아적 윤리를 체현하는 모순적 분열적 주체로서(임세화, 「청년의 성장과 젊음의 모순—손창섭의 〈길〉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김영찬, 「손창섭의 〈길〉이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들」, 『세계문학비교연구』 제47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4.) 당대 사회가 강조하던 건설적 인간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간이라는(김문정, 「1960,70년대 서울과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의 서사」, 『상허학보』 제41집, 상허학회, 2014.) 부정적 해석도 있다.
103) 손창섭, 앞의 책, 2002, 536면.

편소설은 개인적 정의에 입각한 의협이 개발독재 사회의 현실에서 무의미한 폭력으로 귀결하거나 자본주의 가부장제 질서로 회귀할 뿐임을 드러낸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손창섭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개인적 정의에 입각해 부정한 사회에 비분강개하며 폭력으로 대응하는 의협의 서사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의협의 서사는 개인적 정의감에 기반해 무력으로써 사회질서와 규범에 대한 파괴와 저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전 군담소설 등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다양한 역사소설로 형상화되어왔다. 특히 근대소설에서 의협의 서사는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화된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로서 물리적 폭력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성 중심 체계와 논리 이면에서 억압당하는 약자의 히스테리적 폭력으로 형상화되는 등 다양한 저항과 비판으로 이어진다. 손창섭은 「낙서족」에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는 호명을 통해 테러로써 일본의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동시에 강간과 폭행으로 근대 계몽 윤리에 이중으로 저항하는 협객을 형상화하며[104] 「저마다 가슴속에」에서는 처세술을 부정하고 당대의 불합리한 질서와 권력에 맞서 충돌을 일으키는 지식인 남성의 의협을 서사화한다. 이러한 긍정적 의협의 서사는 개발독재 시대를 배경으로 점차 부당한 협잡(「인간교실」)이나 단순한 폭력배의 파괴 행위(「아들들」)로 의미가 축소되거나 당대의 윤리를 강박적으로 구현하는 소동(「길」)으로 귀결한다. 가부장제 자본주의가 공고화되는 1960년대 현실에 있어 사

104) 폭력과 소동으로 독립운동가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다는 「낙서족」의 서사는 어떤 면에서 독립투사의 아들이자 항일 협객, 반공 투사로 자신을 포장하며 호탕한 무뢰한으로 당대 대중에게 각인된 김두한을 연상시킨다. 독립투사의 아들, 항일 협객으로서 김두한의 이미지가 형성된 것은 1960년대 중후반의 일이지만(이에 대해서는 이영재, 「유신과 깡패, 1970년대 액션 영화와 범법의 서사—김두한 모델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5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6, 217-219면 참고.) 일제강점기 종로 일대 가장 영향력 있는 폭력배로 성장한 김두한이 백색 테러단을 거쳐 휴전 이후 민의원 당선 등에 이를 수 있었던 데에는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가 자신을 김좌진의 아들로서 믿고 선전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상을 할 수 있다.

회와 불화하는 개인적 윤리는 실체가 모호할뿐더러,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의협이란 무뢰한의 소동이자 범죄일 뿐 현실에 대한 근본적 저항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객의 활약과 무뢰한의 소동은 개발독재 사회체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현실도피적 욕망의 대상으로 부각된다.

김현은 1960년대 말 무협소설 유행에 대해[105] 주독자층인 당대 중산층의 현실도피와 대리만족이라는 의미를 읽어낸 바 있다.[106] 무협지 복수 이야기는 자기 내부의 욕망과 불안에 맞서 기성윤리와 질서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과장하여 보여주는 서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김현의 무협지에 대한 분석은 어떤 점에서 1960년대 중후반 손창섭의 장편소설들에 대한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다. 사회가 부당하고 불편할수록 사회에 대한 개인적 의분과 좌충우돌의 의협 서사는 독자에게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부당한 사회에 대한 도피나 체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의협의 서사는 김두한의 삶을 모티프로 한 1969년 영화 「팔도사나이」와 「실록 김두한」, 「협객 김두한」 등 김두한 시리즈를 통해 7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 대중성을 확보한다.[107]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속물성과 개발독재 체제의 부정성 가운데 논리보다는 주먹을 앞세우는 협객의 이야기는 당대 현실에 대한 도피인 동시에 간접적 통쾌함을 선사하는 체험이기도 했던 것이다.

105) 우리나라에서 무협소설은 1961년 김광주가 웨이츠원의 무협소설 「검해고홍(劍海孤鴻)」을 번안한 「정협지(情俠誌)」를 경향신문에 연재함으로써 시작되어 60년대 후반 무협소설 붐을 이루게 되었다. 성민엽, 「한국 무협소설의 문화적 의미」, 『문학과사회』 제15권 1호, 문학과지성사, 2002, 783면.

106) 김현, 「무협소설은 왜 읽히는가—허무주의의 부정적 표출」, 『세대』, 1969.10.

107) 송효정은 70년대 김두한 시리즈가 피의 수사학과 반지성주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대중의 보수적 정서를 자극하는 유신시대 반 영웅의 신화로 존재했다고 본다. 송효정, 「반지성주의와 유신의 반영웅—1970년대 전기영화 '김두한 시리즈'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62집, 우리어문학회, 2018, 461-502면 참고.

▮ 참고문헌

김기동 편, 「유충렬전」, 『한국고전문학』 6, 서문당, 1994.
박영준, 「형관」, 『만우 박영준 전집』 9, 동연, 2006.
손창섭, 「아들들」, 『손창섭대표작전집』 3, 예문관, 1970a.
_____, 「통속의 벽」, 『손창섭대표작전집』 5, 예문관, 1970b.
_____, 「낙서족」, 『현대한국문학전집』 3, 신구문화사, 1981.
_____, 『길』, 북갤럽, 2002.
_____, 『손창섭 단편 전집』 1-2, 가람기획, 2005.
_____, 『인간교실』, 예옥, 2008.
이광수, 「단종애사」, 『이광수전집』 5, 삼중당, 1963.
_____, 『바로잡은 〈무정〉』, 김철 교주, 문학동네, 2003.

강애경,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 손창섭의 소설적 기획」, 『한국예술연구』 제18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7, 97-119면.
공종구, 「손창섭 소설의 기원」, 『현대소설연구』 제4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159-184면.
김남희, 「1960년대 개발발전 국가의 '증여통치' 일고」, 『반교어문연구』 제44집, 반교어문학회, 2014, 375-403면
김명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작중인물의 병인적 요소」,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237-266면.
김문정, 「1960,70년대 서울과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의 서사」, 『상허학보』 제41집, 상허학회, 2014, 467-500면.
김영찬, 「손창섭의 〈길〉이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들」, 『세계문학비교연구』 제47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4, 35-58면.
김주리, 「채만식의 〈탁류〉에 나타난 여성 폭력과 히스테리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3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57-172면.
_____, 「춘원과 파리—이광수의 〈천안기〉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7, 231-260면.
_____, 「우울한 주체의 울분과 광기—이광수의 〈마의태자〉와 〈단종애사〉에 대한 고찰」, 『상허학보』 제52집, 상허학회, 2018, 173-210면.
김 현, 「무협소설은 왜 읽히는가—허무주의의 부정적 표출」, 『세대』, 1969.10, 56-71면.
류동규, 「탈민족의 관점에서 본 〈낙서족〉」, 『어문학』 제96집, 한국어문학회, 2007, 399-419면.
_____, 「전후 작가의 식민지 기억과 그 재현」, 『현대소설연구』 제4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143-169면.
박죽심, 「손창섭의 자전적 성격의 소설에 나타난 의미 고찰」, 『어문논집』 제53집, 중앙어문학회, 2013, 339-366면.
박찬효,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의 존재론적 변환과 결혼의 회피/가정의 수호 양상」, 『상허학보』 제42집, 상허학회, 2014, 381-414면.
박영종, 「협객의 충의와 유가적 충의의 충돌에서 바라본 〈수호전〉의 비극성」, 『중국어문학논집』

제3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5, 359-378면.
방민호, 「손창섭의 〈낙서족〉에 대한 일고찰—자전적 소설과 세대론의 관점에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3집, 한국현대문학회, 2003, 299-328면.
성민엽, 「한국 무협소설의 문화적 의미」, 『문학과사회』 제15권 1호, 문학과지성사, 2002, 783-812면.
송하춘 편, 『손창섭—모멸과 연민의 이중주』, 새미, 2003.
송효정, 「반지성주의와 유신의 반영웅—1970년대 전기영화 '김두한 시리즈'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62집, 우리어문학회, 2018, 461-502면.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폭력에 대한 6가지 삐딱한 성찰』, 이현우 외 역, 난장이, 2010.
양정임, 「손창섭 〈낙서족〉의 '껍데기/알맹이'의 상징성 연구」, 『어문학』 제114집, 한국어문학회, 2011, 371-399면.
우현주, 「재일 디아스포라 인물들의 정체성 연구」, 『차세대인문사회연구』 제5호,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2009, 66-84면.
유승현, 「돈황 의협서사의 민중적 의협관」, 『중국소설논총』 제31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0, 49-72면.
이동하, 「손창섭의 〈길〉에 대한 한 고찰」, 『작가연구』 창간호, 새미, 1996, 323-355면.
이영재, 「유신과 깡패, 1970년대 액션 영화와 범법의 서사—김두한 모델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5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6, 203-239면.
이현석, 「손창섭 소설에서 나타나는 부정성의 의미 변화에 관하여—〈잉여인간〉과 〈낙서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417-443면.
임세화, 「청년의 성장과 젊음의 모순—손창섭의 〈길〉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495-531면.
정현선, 「친사회적 행위로서의 俠과 義」, 『중국인문과학』 제54집, 중국인문학회, 2013, 253-272면.
졸탄 코벡세스, 『은유와 감정』, 김동환·최영호 역, 동문선, 2009.
천정환, 「처세·교양·실존—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학사연구』 제4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91-133면.
최미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교원과 교원 사회 연구—〈고독한 영웅〉과 〈통속의 벽〉의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30집,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 337-361면.
최재용, 「의/협의 변천사—최근 중국 인터넷 '선협소설'에서의 의/협 개념」, 『중국소설논총』 제44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4, 311-327면.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히스테리』, 엄양선·윤명숙 역, 여이연, 2003.
한명환 외, 「해방이후 대구 경북 지역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발굴조사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345-370면.

【Abstract】

Chivalry and violence in Son, Chang-seop's novels

Kim, Jue-Lee*

This study aims to search a character who is in discord with society and commits violence based on his own justice and reconsider the meaning of Son, Chang-seop's novels. Chivalry has anti-social meaning that a hero adheres to his own justice despite of violating social rules. The narrative on chivalry is expressed with ancient heros novels which connected Confucianism morals and history novels which a hero does not observe the rule or morals of the ruling class's but pursues of his own justice with violence and breaks the social structure stability in the novels at colonial age. In "A scribble race", the chivalric hero as a son of fighter for national independence gets angry with the structural and symbolic violence and commits physical violence like heading, making bombs, threat and rape etc.. In "In everybody's heart" shows a chivalric violence which a teacher hero pursues his own sense of education against to a snob rule of life and corrupted power but shows a doubt to the possibility of the hero's chivalry. The chivalry in Son, Chang-seop's novels at 1960s like "A human class", "Sons" and "A road" shows a crack between a private justice and physical violences and exposes the back side that the chivalry based on private justice ends meaningless violence or capitalism patriarchal rule in development despotism society. But chivalric action and a rough commotion becomes the object of desire for escape from reality according to the social rule of development despotism strengthening.

Keywords: Son, Chang-Seop's novels, Chivalry, Physical violence, Structural violence, Symbolic violence, Social rule of development despotism.

접수일: 2018.12.31. || 심사일: 2019.01.09. || 게재확정일: 2019.02.01.

*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Hanbat national university.